자신을 사랑하고, 함께 이해하며, 모두가 빛나는 세상

민준이의 특별한 색깔

용기, 이해 그리고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Dr N Raboobee
Vitiligo Society of South Africa



민준이는 학교에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친구들과 배우고 노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는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반점이 생긴 걸까?”
민준이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는 부모님께 자신의 걱정을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따뜻하게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이는 부모님과 함께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백반증이라고 합니다. 전염되지 않고, 네 잘못도 아니란다.”



민준이는 엑시머 빛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치료는 생각보다 편안했습니다.



민준이가 학교에 돌아오자, 몇몇 친구들이 그의 피부를 보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작은 속삭임에도 민준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혼자가 된 것처럼 느꼈습니다.



선생님은 반 친구들에게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백반증은 전염되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친구들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를 다르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민준이는 다시 자신감을 찾았습니다.
그는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았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는 모두의 소중한 친구였습니다.



민준이는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민준이는 이제 자신의 특별한 색깔을 자랑스럽게 빛낼 수 있었습니다.


백반증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지만,
우리의 꿈을 멈추게 하지는 않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모두 함께 빛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HAN RIVER PARK
글: Dr N. Raboobee
대한백반증협회와 함께